

臨床心理診斷에 있어서의 觀察과 檢査

曹 大 京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日常生活에서 흔히 自明的인 것으로 생각하여 오던 것을 어떤 機會에 다른 角度에서 다시 吟味해 봄으로써 새롭게 理解하는 經驗을 우리는 적지 않게 갖는다. 觀察이 무엇이고 檢査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談話하고 行動한다. 그러나 觀察이나 檢査라는 語彙가 Beobachtung 이나 Test에 該當된다는 事實을 조금 깊게 認識하면 우리의 日常의 概念이 滿足스러운 것이 못됨을 알 수 있다. “觀察”하면 “그저 보고 아는 것”, “檢査”하면 “살펴서 좀 더 正確히 調查”하는 뜻 程度의 概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漢字의 影響이 크겠다. 漢字를 보면 “觀察”보다 “檢査”가 더 “正確하고 學問的”으로 보인다.

역시 漢字의 語感때문인지 나에게서는 “檢査”가 “調查”에 가깝게 들리고, “Test”라는 英語單語가 주는 “伸縮可能性의 餘裕”가 있는 듯한 느낌을 “檢査”라는 單語에서 받지 못한다.

이 글을 쓰는 原來의 動機가 “觀察”이라는 것을 強調하려는 데 있고, “檢査”라는 것에 너무 置重하는 傾向을 좀 抑制하여 心理學을 하는 사람의 “機械化”를 (觀察力을 키우기 爲하여) 좀 막으려 하면서도 檢査의 重要性을 強調하는데 있고, 또 사람을 全體로서 把握하려고 할 때에 觀察과 檢査가 함께 併用되어야 함을 強調하려는 데 있기에, 語感問題는 이만 떠나고 觀察과 檢査의 概念을 좀 分析해 볼까 한다.

“觀察은 모든 經驗科學의 基本的 方法이고 모든 心理學의 研究의 根本을 이루는 方法이다”라고 Dorsch의 心理學辭典에 적혀

있다.

觀察은 “그저 보고 아는 것” 以上の 뜻을 가지고 있어 “觀察對象의 本體를 把握하기 爲한 意志的, 意圖的 努力이 隨伴되어야 하고, 計劃이 있어야 하고, 意志의 貫徹이 實現될 때까지 忍耐力가 繼續되어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넓은 意味에서 觀察은 視覺만 動員되는 現象을 넘어 人間이 世界와 接觸하는데 使用하는 모든 感覺器官이 動員되는 現象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귀로 듣는 것도 觀察이 될 수 있으니 觀察對象의 本質을 把握하는데 聽覺도 一助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觀察에도 機會觀察이다, 持續觀察이다 하고 分析하면 더 興味가 있으나, 制限된 紙面이라, 內省法에 反對하여 行動主義心理學이 일어난 事實로 보아 觀察이 얼마나 重要的 것인가를 強調하면서 이번에는 “檢査”를 좀 보기로 한다.

사람을 理解하려는 心理學은 觀察과 實驗에 그 方法을 두고 있는 經驗科學에 屬하면서, 같은 方法에 立脚하고 있는 自然科學과 다른 性格을 지니고 있다. 即 自然科學에서는 그 對象이 自然에 있어서의 事物이나 經過임에 反하여 心理學은 精神科學에서와 같이 人間 精神의 影響이나 能力等を 對象으로 한다. 即 粗雜한 表現을 빌리자면 自然科學의인 方法으로 精神科學의 對象을 研究하는 것이 心理學이라 할 수 있겠다. 精神科學의 테두리를 벗어나 自然科學에 接近하려는 經驗科學이라는 表現이 適切한지도 모른다. 하여간 現在에 全世界에서 使用되는 數千種의 心理檢査가 이 自然科學의인 性

格에 接近하려는 努力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Ebbinghaus의 “Psychologie hat eine lange Vergangenheit, aber eine nur Kurze Geschichte”가 通하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라는 우리의 俗談이 通할 때 우리는 “Person wird durch Person erkannt” 即 사람은 사람에 依해서 認識된다는 文句가 人間理解의 根本인 方法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百聞不如一見”이 特히 心理學에서 重要함을 알 수 있고 觀察이 重要함을 알 수 있다.

그럼 檢査는 어떠한 性格을 띄우고 있나? 心理診斷에서의 檢査는 (檢査는 一種의 刺戟과 反應關係의 究明, 即 實驗에 屬하며 實驗은 또한 觀察의 補助手段이라는 點에서) 觀察의 補助手段에 屬한다.

세상에 사는 것이 바쁘게 되어 서로 알아 이야기 할 수 있는 時間이 制限되어서, 짧은 時間內에 性格이나 能力의 一部를 재빨리 알 必要가 있을 때에 檢査를 하고, 觀察할 수 있어도 表面에 나오지 아니한 局面을 알아 보려 할 때 檢査를 하고, 觀察의 結果가 主觀性을 띄지 않았나 吟味해 볼 때에 檢査를 하고, 客觀적으로 證明하기 爲해 檢査를 한다. 觀察에서 놓친 것을 檢査로서 찾고 檢査에서 찾지 못한 것을 觀察에서 찾는다. 여기서 놓친 것은 質問에서 찾는다. 區區히 論하느니 보다 例를 두어個 들어 觀察과 檢査의 補助作用을 示威함이 理解가 빠르리라.

例一 檢査의 重要性 :

한 女人이 우울症으로 因해서 病院에 왔다 面接이나 觀察에 依해서 얻을 수 있었던 醫師의 患者에 對한 知識은 微微한 것이었고 우울症의 原因에 對한 실마리를 얻지 못했다. 여러 問答中の 醫師의 質問: “혹시 妊娠하고 있지 않습니까?”에 對해서 이 女子는 “그런 더러운 것을 한 적도 없고 男子하고는 앞으로도 接觸없이 지내겠다”라고 答

했다. Rorschach Test에서 다만 第 10 圖에 4 個의 稀奇反應을 보였는데 其中的 二個가 뜻이 있는듯 하였은 즉 第 10 圖 中間下部의 黃色모습 中の 둥그런 褐色모양에 對해서 “애기 얼굴”, 第 10 圖의 外部兩側의 黃色모습의 突出部分을 “무릎을 꿇고 있는 女人”이라고 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醫師가 醫學的檢査를 해본 結果 이 女人은 妊娠을 하고 있었고 이 妊娠이라는 것이 自己가 願하지 않는 種類의 것이었다. 前記 醫師의 質問에 對한 이 女人의 答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願하지 않는 妊娠이라는 Traumatic experience를 Repress 하고 있어 本人自身도 意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例는 얼마든지 있다. 한 例를 더 들어서 男便에게 忠實하지 않는 한 女人이 (男便은 Potenz가 弱하다) 強迫觀念(自己애에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과 찢는 道具(칼, 가위 등) 및 찢는 道具(바늘, 송곳 등)에 對한 恐怖的인 不安이 原因으로 病院에 오게 되었다. 이 女人은 自己의 不忠實을 男便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醫師와의 面接時에도 이點에 關해 一切 秘密을 지키고 있었다. Rorschach 結果에 이 女人은 第三圖에 “아이유, 이것이 뭐지요?, 들이 서로 한 마음인 것 같군요”, 第五圖의 中間部分을 “서로 좋아 하는 두사람”, 第六圖의 上部 突起部分에 “오바코-트를 펴고 있는 (밝은 부분) 男子의 어깨”라는 反應을 했다.

처음의 두 反應은 “남몰래 속삭이는 사람들” 알려주고 第六圖의 反應은 “自己를 뒤집이 싸는” 即 “自己를 감추려는” 傾向을 보여 준다. 이 反應으로 힌트를 얻어 이야기를 한 結果, 果然 이 女人은 自己婦인이 重病인 어떤 男子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 男子로부터 “自己婦인이 죽으면 結婚하자”는 편지를 자주 받고 있었다.

以上 두가지 例로 檢査의 重要性和 檢査

結果를 또 細密히 觀察, 分析하는 것의 重要性을 적은 것으로 하고 다음은 診斷에 있어서의 觀察의 實際的 重要性을 보기로 한다.

觀察에 關해서 論하자면 實은 限이 없게 되니 大略 사람의 外貌를 觀察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程度의 內容을 簡單히 記述하겠다. 檢査와 같은 診斷의 補助手段을 使用하기 前에, 自己의 感覺器管을 診斷에 動員해야 한다는 敎訓은 特히 精神의 障礙의 認識에 있어서 強調되어야 한다. 精神科醫나 臨床心理學者가 첫눈으로 患者를 보고 症狀을 把握하는 데에는 비단 素質뿐만 아니라 長歲月에 걸친 觀察의 經驗과 忍耐있게 觀察한 現象을 分析하는 習慣이 必要하다.

外部的 觀察에서 우리에게서 우선 衣類부터 診斷資料가 된다. 지나치게 “流行”을 따르거나 “남의 눈에 띄는” 옷을 입는 것은 흔히 名譽慾이 강한 精神病質에서 볼 수 있고 국풀이나 밤풀이나 막걸리 같은 것이 옷에 달라 붙고 꾸겨지고 더러워도 그대로 입고 다니는 境遇는 依支할 곳 없고 돌보아주는 사람없는 進行性마비, 動脈硬化症, 알콜中毒, 等の 症狀가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고 香水나 化粧品이나 팔찌나 반지 같은 것을 男子로서 지나칠 程度로 使用하는 境遇는 女性的이고 同性愛의 傾向을 가진 男子에게서 볼 수 있다. Hairstyle도 診斷의 資料가 되는데 男子이면서도 女性的性格을 가진 性格異常者는 흔히 理髮에 關心이 깊어 “아름다운 Hairstyle”에 置重하며 머리를 길게 키우고 다니는 수가 있고 머리를 높이 올리고 豫言者와도 같은 수염을 키운 것은 精神分裂症의인 “世界改造論者” 혹은 “救世主” 등과 “分派活動家” 등에서 볼 수 있다. 興奮狀態의 患者, 特히 女子患者에 있어서 이狀態에 머리는 “영광”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Hairstyle과 精神狀態의 關係를 짐작할 수 있다.

身體에 남아 있는 痕跡도 診斷의 資料가 된다. 팔목에 傷處의 痕跡이 있거나 斬傷이

있는 것은 過去에 自殺企圖가 있었음을 疑心할 수 있고, 광대뼈, 코, 턱, 이마, 눈섭部分等 骨格의 튀어나온 部分의 傷處의 자국은 痼疾發作을 疑心할 수 있고, 얼굴의 이러한 傷處가 比較的 새로울 때는 醜陋, 싸움 같은 것이 있었음을 疑心할 수 있고, 할킨 자욱같은 것은 女子와의 衝突等을 推測할 수 있게 한다. 紋身도 그 그림內容에 따라 情緒의 未發達者나 犯罪者에서 特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姿勢도 그 사람의 精神狀態를 말해 준다. 無理없이 直立하고 있는 姿勢는 心理에 正常的인 伸縮性이 있음을 알려 주고, 우울症에 빠져 있거나 意志薄弱者는 身體도 역시 꽃이 시들듯이 축 늘어져 있게 되기 쉽다. 名譽慾이 강한 精神病質者나, 妄想型精神分裂症 患者의 지나친 自己過大評價나 교만은 또한 “莊重하고 堂堂한” 몸가짐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 緊張型精神分裂症 患者의 奇異한 體位는 우리가 잘 아는 바다. (以上 및 以下の 글 內容이 絶對的인 것이 아님을 心理學의 性格에 비추어 參酌 하기 바란다)

姿勢보다 더 豐富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에 얼굴表情이 있다. 그때 그때의 瞬間的인 感情의 狀態를 말해주는 Mimik이 있고 持續되는 情緒狀態를 말해주는 比較的 오래 繼續되는 얼굴表情이 있다. 우울症 患者의 슬픔과 絶望, 躁狂症 患者의 솟아오르는 明朗性, 많은 痼疾病 患者의 快의한 듯한 自己滿足, 緊張型精神分裂症 患者의 內的인 緊張, 混亂狀態에 빠진 動脈硬化症 患者의 唐慌等 等은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얼굴을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心理學의 對象이 모두 그렇듯 例外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 둔다. 例를 들어 無表情한 얼굴인데도 높은 知能의 所有者일 수가 있고 멍청하고 固定된 눈초리의 原因이 精神의 面에 있지 않고 Basedow氏病에 있는 境遇같은 것 들이다.

上記한 것들은 靜的面的 觀察에 屬하나 行動을 觀察함으로써 靜的, 動的을 合쳐 綜合

的印象을 얻을 수 있다.

患者를 처음 만날 때 患者가 友好的이요, 開放的이요, 수다스럽다고 해서 精神病(psychosis)이 아니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心理的인 contact가 잘 成立되는 경우, 적어도 甚한 精神病은 內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증患者는 물음에 對해서 “疲困한 듯한 無關心的인” 態度로 臨하여 抑壓이 甚하지 않은 境遇는 不平이나 두려움을 數없이 털어내어 精神科醫나 臨床心理學者에게 도움을 求한다. 躁狂症이나 進行性마비患者는 흔히 아무 心理的인 距離感없이 마치 오래된 親舊같은 態度로 醫師를 對하고 끊임없이 지겨리며 弄談 등을 하나 그들의 이야기에 醫師가 한마디의 反對意見이라도 提出할 것 같으면 곧 刺戟된다. 精神薄弱者도 醫師나 臨床心理學者에게 흔히 信賴的인 態度를 보인다.

避하고, 非友好的이고, 鄭重하지 못하고 辱을 하고, 脅迫的이고, 곧 대들 것 같은 態度

는 많은 精神分裂症患者에서 볼 수 있다. 意識이 몽롱한 狀態에 있는 動脈硬化症이나 痲疾病患者는 醫師가 옆에 있어도 醫師의 存在를 認識 못할 때가 많다. 히스테리나, 히포콘데리아나, 其他 어떤 精神病質은 醫師에게 不平이나 不滿을 털어 놓을 뿐 아니라 흔히 “演劇的”인 態度를 보인다.

上記한 것 以外에 걸음거리, 音聲, 말하는 態度 等도 診斷資料가 될 뿐 아니라 臨床心理學者의 觀察力에 따라서는 握手의 態度로 各其의 精神病의 形態로 區分할 수 있다. 例를 들어 精神分裂症患者의 말없고, 차며, 無關與的인 握手나,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듯한 痲疾病患者의 握手等을 들 수 있다.

이 機會에는 臨床心理診斷에 있어서 觀察과 檢査가 併用되어야 하며 이 兩者에 여러 가지 質問이나 問議가 따른 後에 한個人에 對한 綜合的인 診斷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點만을 다시 한번 強調하면서 맺는다.

參 考 文 獻

- Gerhard Kloos; Psychiatrie und Neurologie 6. Auflage S. 111—118, München, Verlag von Rudolph Müller & Steiniche. 1962.
- Th. Spoerri; Kompendium der Psychiatrie, 2. Auflage S. 2—3. Stuttgart Gustav Fischer Verlag, 1963.
- Friedrich Dorsch; Psychologisches Wörterbuch: 6. Auflage S. 45, Bern, Hans Huber 1959.
- Ewald Bohm; Lehrbuch der Rorschach-Psychodiagnostik. 2. Auflage S. 222—223, Bern Hans Huber.
- Werner Traxel; Einführung in die methodik der Psychologie S. 37—64, Bern, Hans Huber, 1964.
- Richard Meili; Lehrbuch der Psychologischen Diagnostik. 4. Auflage S. 5—16, Bern Hans Huber. 1961.
- Hubert Rohracher; Einführung in die Psychologie, 8. Auflage S. 9. Wien, Verlag Urban & Schwarzenberg, 1963.

Résumé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ests and Observation in Clinical Diagnosis

As demands for psychological tests and their applications rapidly grow in our country,

there seems to be a tendency among testers without sound background of trainings as well as among testees to treat the test results purely on mechanical basis i.e. to evaluate the person entirely by these results without giving any considerations to other observable facts.

The present article stressed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observation in the process of diagnosing a symptom, a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rvation and tests, first by clarifying defini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two words, and second by explaining the nature of psychological tests.